

예상 못한 중형에 큰 충격 “현안 처리 어떻게...” 술렁

■ 동구 불법선거 선고 법정 표정

“로봇처럼 명령따라...” 진술서 낭독에 긴장

27일 오전 9시50분 동구 불법선거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개정 전부터 광주지법 301호 법정 앞은 수백명의 인파로 후끈 달아올랐다. 피고인이 29명에 이른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박주선 의원과,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의 형량에 모아졌다.

9시45분께 법정 문이 열리고 재판관을 주도한 문유석 형사6부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30여 분에 걸쳐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문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주요 피고인들이 검찰 진술과는 달리 박 의원과 유청장에 대한 혐의 상당부분을 반복하거나 부인했지만 재판부가 이들의 법정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낮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밝혀 자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고, 박 의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문 부장판사는 특히 이번 불법선거 가운데 관련 정보(여·47)씨가 검찰에 자필로 제출한 진술서를 그대로 낭독하자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예측이 크게 어긋났음을 직감했다.

정씨는 진술서에서 “이번 일로

너무 재책을 받아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로봇처럼 명령대로 따르는 자신이 너무 싫었다”며 “세상이 다 이렇기보다, 출신이 낮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도 모바일 투표표를 받아오는 내 자신이 싫었다, 동구에서 사는 것이 싫다,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으며 정치의 세계가 이렇기 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현상 뼈저리게 느낀다”고 적었다.

박 의원과 유 청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징역 2년의 실형, 그리고 이어지는 법정구속 및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제출이 결정되자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유 구청장은 “몸이 아프다는 것을 배려해달라”고 밝혔다. “감안했다”는 재판부의 답변만 돌아왔다.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국회의원이어서 일단 구속을 면한 박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재판부가 증거가 아니라 추정으로 재판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7일 법정구속으로 텅 빈 유태명 동구청장의 집무실. 책상 너머 유 청장의 사진이 걸려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청장 법정구속 동구청 분위기

“또 선거 치러야 하나” 주민들 걱정 앞서

유태명 동구청장이 법정구속되자 구청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됐던 유청장이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구속되자 동구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에 따라 대행체제에 들어갔다.

27일 유청장에 대한 1심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동구청 직원들은 크게 술렁이며 좀처럼 일손을 잡지 못했다. ‘수장’의 부재로 총장으로 아케이드 설치, 총장축제, 도시개발 사업 등 현안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효성 부구청장은 이날 각 실국장을 소집해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청장의 공백에 따라 하반기 정기인사도 불가피하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동구에 따르면 구는 명예퇴직 4명과 공로 연수 1명, 정일 조정 2명, 결원부서 배치, 동일부서 3년 순환전보 실시를 위한 2012년도 하반기

정기인사위원회를 28일 개최한 뒤 7월1일자로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었다.

구는 28일 인사위원회는 예정대로 개최되 인사위원들에게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연기를 요청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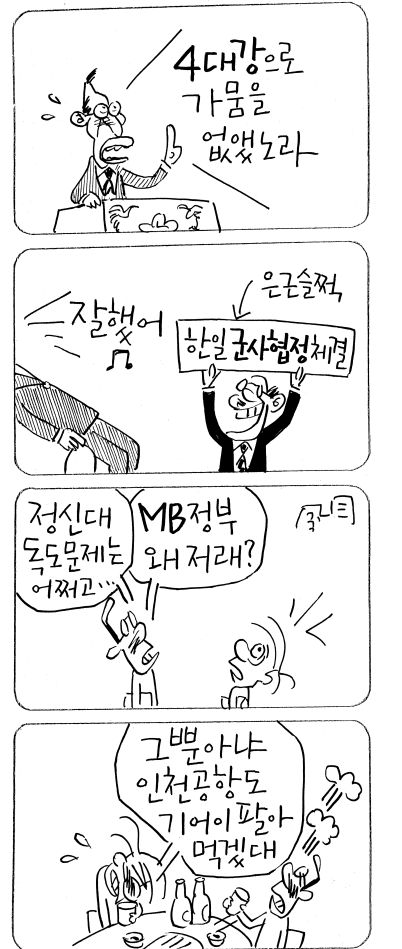
동구청 한 고위 간부공무원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높은 형량에 놀라 어안이 병병하다”며 “빠른 시간 내에 직원들과 구정을 안정시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동구지부는 성명을 내고 “법정구속된 유태명 동구청장과 박주선 국회의원, 이번 사건에 연루된 두 명의 구의원이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청장의 법정구속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 박모(45)씨는 “지난 4·11 총선 때도 후보들이 난립해 혼란했는데 또 선거를 치러야 할지 모르겠다”며 “주민이 또 분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걱정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원침 (8597) 김종두



전남 해양바이오연 화재

27일 오전 11시 12분께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전남도 해양바이오연연구소내 조립식 건물에서 불이나 건물 일부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됐다. 이 불로 연구소 조립식 건물 뒷벽 일부가 소실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연구소 직원과 대학 실습생들이 폐목재 등 쓰레기를 태우다 실수로 조립식 건물에 옮겨 붙으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서부취재본부 조완민기자 wncho@

車 주행 중 DMB 보면 벌금 7만원

내비게이션·휴대전화·PMP·태블릿 PC도 금지

내년부턴...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자동차 주행 중에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등 화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면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7일 자동차가 움직일 때 운전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면 범칙금을 최고 7만원, 벌점은 15점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주행 중에 DMB 뿐 아니라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PMP, 태블릿 PC 등 방송이나 영상물을 수신, 재생하는 모든 기기를 통해 영상을 보는 행위가 금지된

거래은행 사칭 “보안강화” 문자에 속았다

정보인력 540만원 피해... 신종 보이스피싱 급증

광주시 서구에 사는 김모(여·43·주부)씨는 지난 15일 거래 은행을 사칭한 ‘보안을 강화하세요’라는 문자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개인정보가 누출될 것을 걱정해 김씨는 곧장 문자에 적힌 가짜 국민은행사이트 주소에 접속해 인터넷뱅킹과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입력했다.

그런데 3일 뒤 자신의 통장에서 540만원 전액이 이체된 사실을 깨닫게 됐다. 사기범이 김씨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김씨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뱅킹을 통해 돈을 빼간 것이었다. 광주서부경찰은 황급히 이체된 통장의 계좌정지요

청, 김씨의 피해금액을 되돌려줬다.

최근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안 등급을 올려야 한다’ 등의 문자를 보내 피싱사이트로 유도, 예금을 가로챈 신종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2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최근 2~3개월 동안 김씨와 같이 ‘보안강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사례가 모두 1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는 최고 3000여만원이 인출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소풍몰 등 각종 인터넷사이트와 휴대전화 개통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불안해하고 있

는 시민들의 심리를 사기범들이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기범들이 특정한 이름과 거래은행, 계좌번호까지 적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유도인터넷사이트 또한 실제 사이트와 99% 유사하게 제작해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안강화 문자를 통한 피싱사이트 유도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지만 금감원은 지난 26일 예야 주의를 촉구하는 등 நட장대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체 3117건 342억원 중 1310건 210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진수기자 kki@kwangju.co.kr

경로당 절도 10대 5명 검거

광주 동부경찰은 27일 경로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정보(15)군 등 5명을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군 등은 지난 4월15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동구 운림동 한 경로당에 들어가 안방에 있는 나모(여·85)씨의 현금 40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로당이 밤이 되면 비고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담을 넘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가출을 한 후에는 노인 당에서 잠을 자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주변 노인당 피해 사실 토대로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팔아넘긴 중고차 훔친 조폭 덩미

○“자신들이 팔아넘긴 중고차 덩미를 보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해 훔친 30대 조지폭력배들이 경찰에 탐미.

○“27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지역 모 조지폭력배 일원인 송모(31) 등 2명은 지난달 26일 오전 8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모 아파트 인근 도로에 자신들이 판매했던 에쿠스 승용차가 주차돼 있는 것을 보고 보조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달아났다는 것.

○경찰은 범행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 추적한 끝에 이들을 검거.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트레일러 대형 1,2종보통 2종소형(오토바이)

휴일에도 접수·교육 합니다.

운전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 깨끗한 환경 ▶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확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